



정교회 주보



성 테오도토스 순교자

- 부활 후 제 3주일 / 향유가진 여인 주일
 성 테오도토스 수사
 제 2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 부활절 예식서 38
 - 아리마태아 요셉 축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5
 - 향유가진 여인 주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6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6:1~7 / 252, 봉독서 42
 - 복음경 : 마르코 15:43~16:8 / 98, B 16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테오도토스 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5월 18일 축일로 기념하는 테오도토스 성인은 갈라티아의 앙기라 출신입니다. 곡물 상인이었으며 동시에 제빵사였습니다. 경건하고 자비로운 테오도토스는 교회를 위해 성체빵을 만들었고,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었고, 종종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여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교도들의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하여 한 호수에서 일단의 그리스도교 여성들을 집단으로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테오도토

스는 사건이 일어난 후 밤이 되자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믿음과 용기로 여성들의 유해를 호수에서 꺼내 장사 지냈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은 이 소식을 듣고 성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에 크게 격분하여 테오도토스를 잡아들여 참수하였고 성인은 영광스럽게 순교자 무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가치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의
육신을 몸소 만드
셨고, 육신 안에 영
혼이 머물러 살아
숨 쉬게 하셨다. 그
러므로 육신이 존
재하지 않았다면



아나서 도시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
과 예수께서 부활
하신 후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것
과 토마에게 실재
적으로 살아계심
을 보이신 것, 그

영혼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영혼이 존
재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존재 가치도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영혼과 육신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태초의 인간에 의한 죄로 인해 육신은 한정
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육신은 죄로 인해 생명의 한계가 있어
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지만, 그렇
다고 육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십일 동안 여러 사
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
하시어 제자들과 믿는 모든 이들이 영적인 사
람이 되어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 영적인 삶
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항상 하느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 영과 육
이 함께 성령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
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리고 살
아가고 있는 성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느님의 축
복으로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
하고 있다.

육신의 가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
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
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

리고 승천하신 것 등이 있으며, 구약성서 열왕기
하 13:21에서는 더욱더 뚜렷이 하느님의 은총
이 죽은 자의 육신에도 계속 머물러 기적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즈음 모압
강도떼가 해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들어
왔는데, 한번은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다
가 그 강도떼들을 만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
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다.” 그러므
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루가8:52)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고 표현한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가 되었다. 육신은 비록 잠이 들어 흙으로 돌아
가지만, 부활의 그 날에는 본 모습을 되찾아 영
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잠이든 육신에
주님의 은총이 계속 머물러 구원을 받기 위해
서는 성인들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
다. 그들은 성서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지금까
지도 잠든 육신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고백성사를 위한 안내

저는 정교 신앙과 거룩한 교회와 관련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불신, 의심, 실망, 낙담, 폭력적인 생각, 신성모독과 욕설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위대하고 끊임없는 선물들 모두에 대해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존하지 못했으며, 게으름과 주의력의 결핍 때문에 하느님의 명령과 거룩한 교부들의 교훈을 배우는 일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하루를 지내는 동안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그저 건성으로, 게으르게, 경솔하게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그리고 정신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도록 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성직자들과 동료 인간들을 판단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교만과 제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자기도취, 허영심, 선망, 칭찬과 명예를 얻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판단과 악의적인 험담, 화, 저에게 행해진 모욕을 기억하는 것, 미움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비방과 비난, 거짓말, 교활함, 속임수와 위선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편견과 말다툼, 완고함, 이웃에게 기꺼이 양보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교만한 행동과 건방진 태도, 무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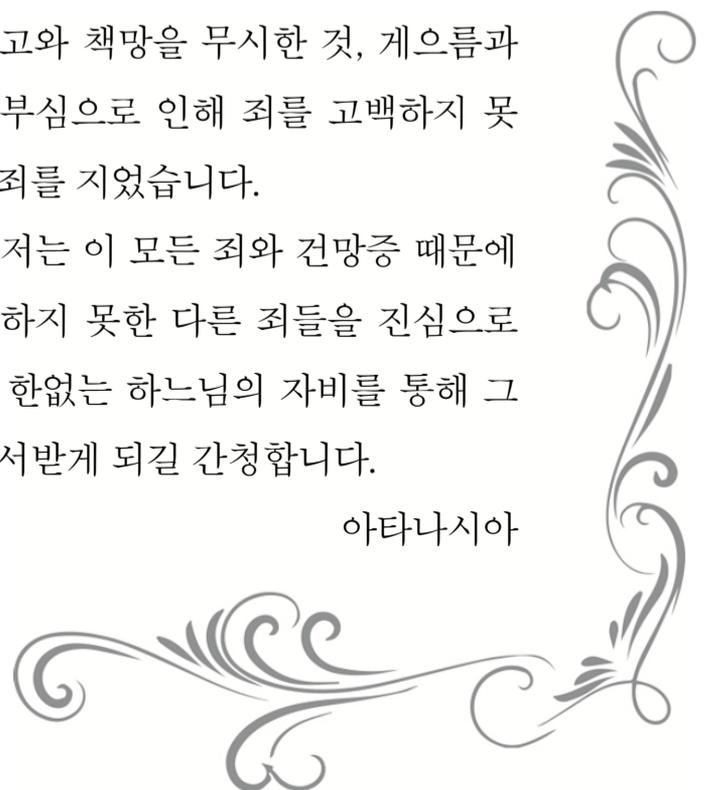
함, 남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불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질병과 슬픔에 대해 참을성과 인내심이 없음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제양심의 충고와 책망을 무시한 것, 게으름과 잘못된 자부심으로 인해 죄를 고백하지 못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죄와 건망증 때문에 여기서 말하지 못한 다른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한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그 죄들이 용서받게 되길 간청합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5월 방문 일정

5월 16일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5월 23일 - 전주 성모안식 성당

5월 30일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온라인 성서공부 시청

성대주간과 부활절 축일로 잠시 멈추었던 온라인 성서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 사도 바울로의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공부합니다. 매 주 월요일 한국정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성서공부를 통해 우리들에게 유익한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온라인 단체 모임 참여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아직 온전하게 한 자리에 모여 친교의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라인 줌으로 단체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소속된 교인 분들은 각 단체 줌 모임 때 일정을 조정하셔서 꼭 참여하여 온라인으로나마 영적 말씀을 듣고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장년회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활동

지난 5월 8일 장년회 회원들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수도원 안팎 정리정돈 청소와 1층 방 구조변경 공사 등, 수도원에 필요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러시아 승전기념일 기도식

5월 9일 제 2차 세계대전 러시아 승전기념일을 맞이하여 로만 카프착 신부의 집전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이들을 위한 특별 추모 기도식을 드렸습니다.

주간예식



5월 21일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 성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